범여주자 '평화 이슈 띄우기' 경쟁

李, 한반도 재창조 플랜 발표
孫, 상생경제 계획 구체 제시
鄭, 평화 경제론·개성선언 탄력
韓, 햇볕·대북포용정책 부각
千, 정상회담 의제로 토론회

전격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계기로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평화이슈 띄우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남북 평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상회담 막후 역할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당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전 총리는 오는 12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한반도시대 재창조' 플랜을 발표하고 이달 중 한강하구 준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임진강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특수를 이끌어 낼 대규모 경제협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 크다"며 "북한은 남포, 원산, 신의주, 나진 등의 공단 설립과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등에 대한 관광사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9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4개국 정상이 각각 회담을 가지면 8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평화체제 지향을 3대 비전의 하나로 제시하는 등 평화 행보에 적극 나섰다. 손 전 지사는 지난 2월 발표한 북한 경제재건 10개년 계획을 보완해 북한의 경제재건과 북방시장 선점을 위한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또 한나라당에 있을 때에도 당론과 달리 햇볕정책의 계승을 주장했고 경기지사 재임시절 평양 인근을 방문해 벼농사 협력사업을 진행해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장 측은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평화경제론'과 '개성선언'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전 의장은 조만간 임동원·박재규·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원로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1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14일에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공약 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다음주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는 데 이어 예비역 장성과 통일·외교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과의 토론을 거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발표회도 열 계획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총리 재임시절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9일 오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중도통합 전진대회에 참석한 대선주자들이 내빈 소개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환 전 의원, 이인제·신국환·조순형 의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1월 후보단일화 통해 대통합 시도"

민주당 목포서 '중도통합 전진대회'

중도통합민주당은 9일 목포에서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진대회를 열고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 '당 사수' 의지를 다지며 내부 결속을 꾀했다.

이날 오후 3시 목포 시민문화센터에서 전남도당(위원장 이상열) 주최로 열린 '중도통합 전진대회'에는 박상천 대표와 최인기 원내대표를 비롯 조순형·이인제·신국환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등 대선주자들과 당원 2천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이날 "민주신당 창당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1천700명인 반면, 신규 입당자는 5천900명에 달해 민주당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중도개혁통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되 신당이 국정실패 세력인 열린우리당을 몽땅 끌어들일 경우 독자적인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대선후보를 내어 11월 중·하순께 후보단일화를 통해 다시 한번 중도개혁대통합을 꾀하겠다"며 당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상열 위원장은 "그동안 전남도민들은 눈앞에 보이는 대세보다 옳은 길이라는 대의를 따랐다"며 "오직 중도개혁세력 대통합만이 한나라당을 꺾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중도개혁통합추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대선기획단 구성을 의결, 사실상 민주당만의 대선 독자 경선 의지를 구체화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新창조 국가 건설 매진 하겠다"

손학규 전 지사 대선 출마 선언

범여권 대선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신(新) 창조국가'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 지지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출마선언식 겸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선진경제, 통합사회, 평화체제를 3대 국가목표로 제시한 뒤 "낡은 이념의 굴레를 깨부수고 녹슨 지역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창조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성취는 성취대로 긍정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바로잡아 새로운 역사창조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세력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경영의 새로운 길, 신창조국가의 비전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면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니는 '세일즈맨 대통령', 방방곡곡을 누비며 민심을 듣는 '민생 대통령',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정책공약 발표 등 경선 채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캠프에는 홍재형·송영길·정장선·이종걸·유선호·이기우 등 의원 20여명이 캠프에 추가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적 386의원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대변인을 맡아 캠프 활동을 시작했다. 선대본부장으로는 문희상 전 우리당 의장 등 3선급 이상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도곡동 땅 매입 관련

우리, 이상은씨 고발

열린우리당은 9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형 이상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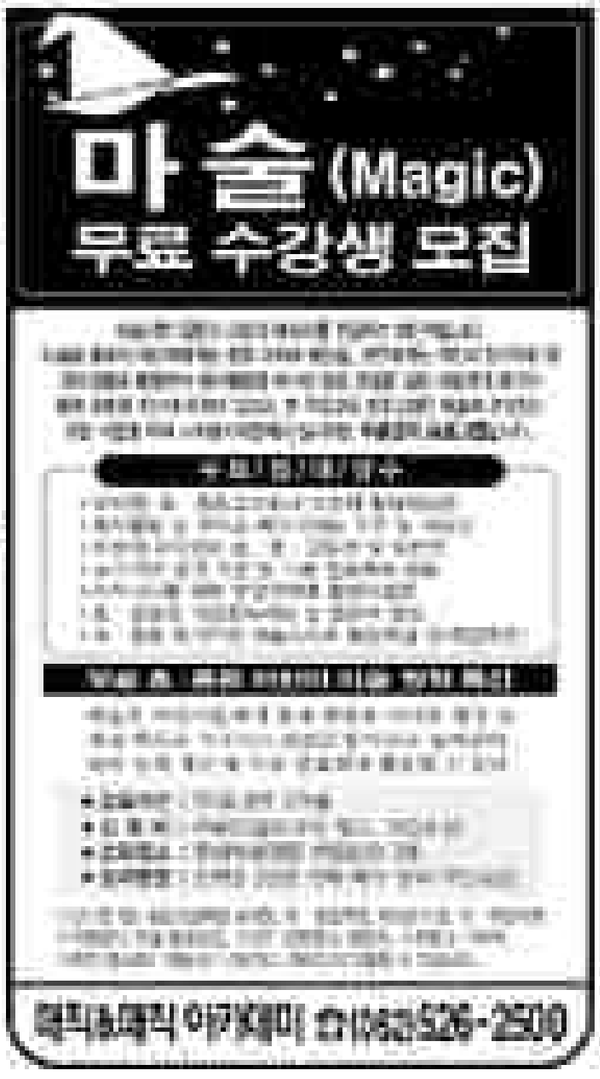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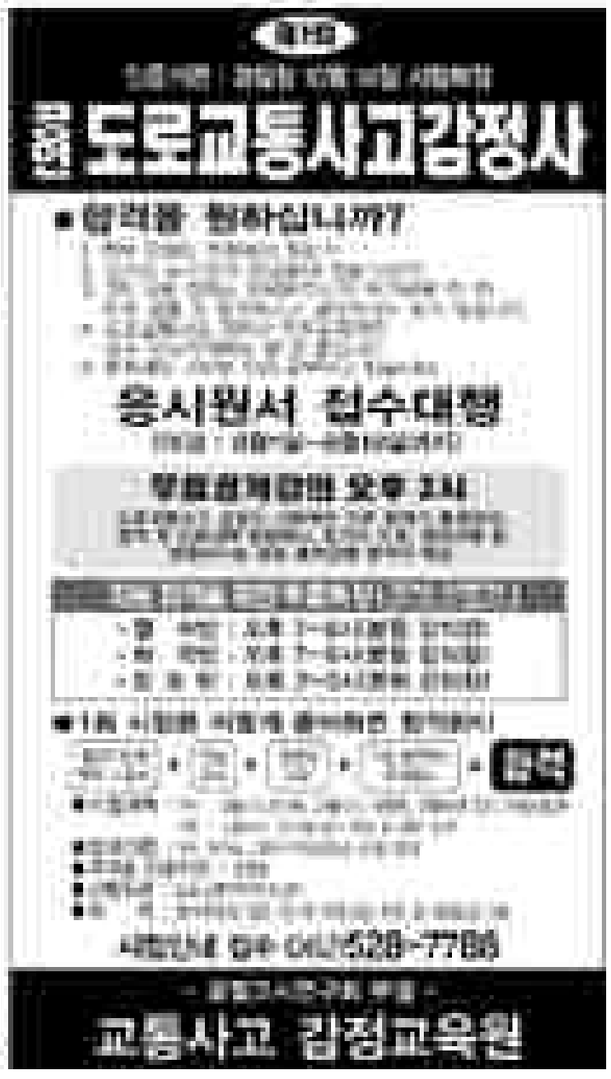
우리당이 작성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씨는 1985년 도곡당 땅 매입당시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와 4.7대 5.3(7억3천만원 대 8억3천만원) 비율로 투자했다가 1995년 포철에 이 땅을 매도한 대금 263억원을 6.8대 3.2(178억원 대 85억원)로 나눠가졌으며 5년이 지난 2001년 2월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김씨로부터 58억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조순형 "대통합 과정 DJ 따라갈 수 없다"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인 조순형 의원은 9일 "이번 대통합 과정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에 나선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당원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모범이고 본받아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실정치 개입은 정치적 논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명분과 원칙 없는 통합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에 박상천 대표를 선택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